

JR 고노선 - 고이리강 철교

고노선은 아키타현 히가시노시로역에서 아오모리현 가와베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47km의 철도입니다. 노선의 대부분은 일본해(한국 동해)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는데, 한쪽은 바위투성이 해안선을, 또 다른 한쪽은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의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산 정상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고노선을 달리는 특별열차 ‘리조트 시라카미’는 커다란 차창이 있어 단순한 전철 이동을 다채로운 지역 여행 체험으로 바꿔 주는 다양한 특징을 겸비하고 있습니다.

리조트 시라카미에는 3 종류의 차량 편성이 있습니다. 시라카미 산지 생태계의 중심인 너도밤나무에서 이름을 따온 녹색 열차 ‘부나’, 주니코역 근처의 감청색 호수에서 이름을 따온 푸른색 열차 ‘아오이케’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붉은 빛이 있는 검은색 딱따구리인 까딱따구리에서 이름을 따온 붉은 줄무늬가 있는 열차 ‘구마게라’입니다.

각 열차는 여유 있는 3 량의 보통차와 박스석을 갖춘 차량 1 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. 박스석의 각 칸에는 중앙 테이블이 있으며, 좌석은 풀 플랫으로 만들 수 있어 승객이 신발을 벗고 다리를 뻗을 수 있습니다. 차량 내부는 아키타산 삼나무 등 현지 목재가 깔려 있고 전망실에서는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거나 지역 공예품이 전시되기도 합니다.

공연에는 샤미센(전통 현악기)으로 연주되는 라이브 연주, 지역 방언으로 들려주는 이야기, 아오모리의 전통 인형극 등이 있습니다. ‘부나’에는 토속주를 맛볼 수 있는 바(Bar)가 있습니다. 제공되는 내용은 열차마다 다릅니다. 자세한 내용은 JR 동일본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승객들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열차는 느긋한 속도로 운행됩니다. 경승지에서는 승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더 감속합니다. 노선상에 있는 많은 관광 명소 중에 항구 도시인 노시로시가 있습니다. 농구 강호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며, 이 학교는 일본 전국대회를 55 회 이상 제패한 적이 있습니다. 노시로역 뒤편에는 농구 골대가 있는데, 슛을 넣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시라카미 산지 너도밤나무 원생림을 방문하려면 핫포초에 있는 역에서 가는 것이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립니다. 그곳에서는 하이킹과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핫포초의 아키타시라카미역에서 북쪽으로 두 정거장 가면 주니코역이 있습니다. 주니코역에는 언덕으로 둘러싸인 33 개의 호수와 늪이 있으며, 이 호수와 늪은 1704 년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. 말 그대로 ‘푸른 연못’을 뜻하는 ‘아오이케’는 이 중에서 가장 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, 흐린 날에는 선명한 푸른색이 짙은 남색으로 변합니다. 연못 부근에서는 다양한 길이의 하이킹 코스가 시작됩니다. 역에서 연못 근처까지 버스가 운행하고 있지만, 3 월 말부터 11 월까지는 도로가 통행금지 됩니다.

리조트 시라카미는 전석이 지정석이며, Ekinet 웹사이트를 통해 영어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. 보통차의 ‘A’석과 모든 박스석에서는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바다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무료 Wi-Fi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전 차량 금연입니다.